

2023년 더욱 강력해진

(무)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과 (무)괜찮아요암보험의 강점 마케팅 포인트

CONTENTS

1.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강점 마케팅 포인트
2.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비과세 마케팅 포인트
3.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상속세 이슈 마케팅
포인트
4.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헬스케어 마케팅 포인
트
5.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다목적 활용 마케팅
포인트
6. 「교보괜찮아요암보험」 강점 마케팅 포인트

● 새롭게 달라진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핵심 강점

1

확정금리의 상승

보험가입기간별 적용이율 차등 적용 : 보험가입 후 5년 - 3.5%, 5~15년 2.5%, 15년 이후 - 2.15%

2

중도인출 기능 향상

납입기간 동안 추가적립액에서 인출 가능, 납입기간 이후 기본적립액과 추가적립액에서 인출 가능

3

5년납과 6년납의 신설

보험료 납입기간의 다양한 선택지 마련, 5년납과 6년납으로 조기완납 실현

4

보험료 인하, 해약환급률 상승

40세 남자, 7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시 보험료 4.7% 인하 & 해약환급률 약 1% 상승

5

질병사망 10%씩 체증

보험료 납입기간 내 질병사망 50%~100% (5년간 10%씩 체증), 납입기간 이후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강점 마케팅 포인트

● 보험료는 **인하**되고 해약환급률은 **상승**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보험료 및 환급률(납입기간 종료시점) 비교, (신종 vs 현행)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 남자, 단위 : 원)

| 구분 | 5년납 | | 6년납 | | 7년납 | | | | 10년납 | | | |
|-----|-----------|-------|-----------|-------|--------------------|---------|--------------------|--------|--------------------|---------|--------------------|--------|
| | 보험료 | 환급률 | 보험료 | 환급률 | 보험료 | | 환급률 | | 보험료 | | 환급률 | |
| | | | | | 현재 | 과거 | 현재 | 과거 | 현재 | 과거 | 현재 | 과거 |
| 20세 | 629,000 | 97.6% | 529,000 | 99.1% | 458,000 (6.9%↓) | 492,000 | 101.1% (+0.7%p) | 100.4% | 323,000 (6.6%↓) | 346,000 | 105.2% (+0.5%p) | 104.7% |
| 40세 | 892,000 | 98.0% | 750,000 | 99.6% | 649,000 (4.7%↓) | 681,000 | 101.6% (+0.7%p) | 100.9% | 458,000 (4.4%↓) | 479,000 | 105.7% (+0.6%p) | 105.1% |
| 60세 | 1,274,000 | 96.7% | 1,074,000 | 97.8% | 933,000 (1.5%↓) | 947,000 | 99.2% (-0.3%p) | 99.5% | 666,000 (1.0%↓) | 673,000 | 101.2% (-0.6%p) | 101.8% |

(남자40세 7년납 가입금액 1억원 기준, 단위 :만원)

| 경과 | 과거 | | | 현재 | | |
|-----|--------|--------|--------|--------|--------|--------|
| | 환급금 | 환급률 | 사망보험금 | 환급금 | 환급률 | 사망보험금 |
| 7년 | 5,772 | 100.9% | 10,708 | 5,540 | 101.6% | 10,000 |
| 10년 | 6,157 | 107.6% | 10,763 | 5,910 | 108.4% | 10,000 |
| 20년 | 7,433 | 129.9% | 10,953 | 7,202 | 132.1% | 10,000 |
| 30년 | 8,674 | 151.6% | 11,162 | 8,607 | 157.9% | 10,000 |
| 40년 | 9,895 | 173.0% | 11,417 | 10,389 | 190.6% | 10,476 |
| 50년 | 10,964 | 191.7% | 11,727 | 12,649 | 232.0% | 12,755 |

● Financial Platform으로 활용하는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 국민건강보험개편과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비과세 활용

| 대상 | 내용 | 부과체계 |
|-------|---------------------|--|
| 지역가입자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
| | 소득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 |
| |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
| 피부양자 | 자격기준 강화 | 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 | | 재산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2002년 9월 이전과 동일) |

향후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가능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연 1천만원 초과→336만원 초과로 강화 검토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전망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세무시신문, 2022.10.27)

● 국민건강보험개편과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비과세 활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2.6.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 ㉡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시행일 2022.9.1]]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시행일 2022.9.1]]
-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시행일 2022.9.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시행일 2022.9.1]]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더는 절세 전략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하기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특히 금융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필요

재산 과세표준 분산하기

자녀증여재산공제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와 **배우자증여재산공제**(6억원)을 활용하여 증여로 재산 분산 고려

연금소득으로 갈아타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상품과 같은 **과세이연상품**의 가입을 고려해야 함
연금저축 1년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율은 3.3~5.5%이며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 (1년 1200만원 초과 수령하면 종합과세 적용)

소득발생시점 분산하기

소득발생시점을 분산해 연간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더는 절세전략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더는 절세금융상품

ISA계좌

- 이자·배당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200만원 초과액 9% 분리과세 적용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 5,000만원 안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입기한 2022.12.31, CITI은행 홈페이지 참조)

농·수·신협 예탁금

-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단,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배당소득세 과세)

조합 출자금

-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동여가목돈마련저축

- 가입대상 제한 (ex :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등)

브라질국채

-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 소득은 물론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이 생겨도 과세 X

장병내일준비적금

- 월 40만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세 비과세(참고 : 국세청 『국세매거진』)

종신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5년납 이상 등 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적용

● 줄줄이 사탕 워드 이어지는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연쇄 절세 효과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남자40세 7년납 가입금액 1억원 기준, 단위 :만원)

| 경과 | 신종(안) | |
|-----|--------|--------|
| | 환급금 | 환급률 |
| 7년 | 5,540 | 101.6% |
| 10년 | 5,910 | 108.4% |
| 20년 | 7,202 | 132.1% |
| 30년 | 8,607 | 157.9% |
| 40년 | 10,389 | 190.6% |
| 50년 | 12,649 | 232.0% |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연금소득세
과세 X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장기요양보험
료
부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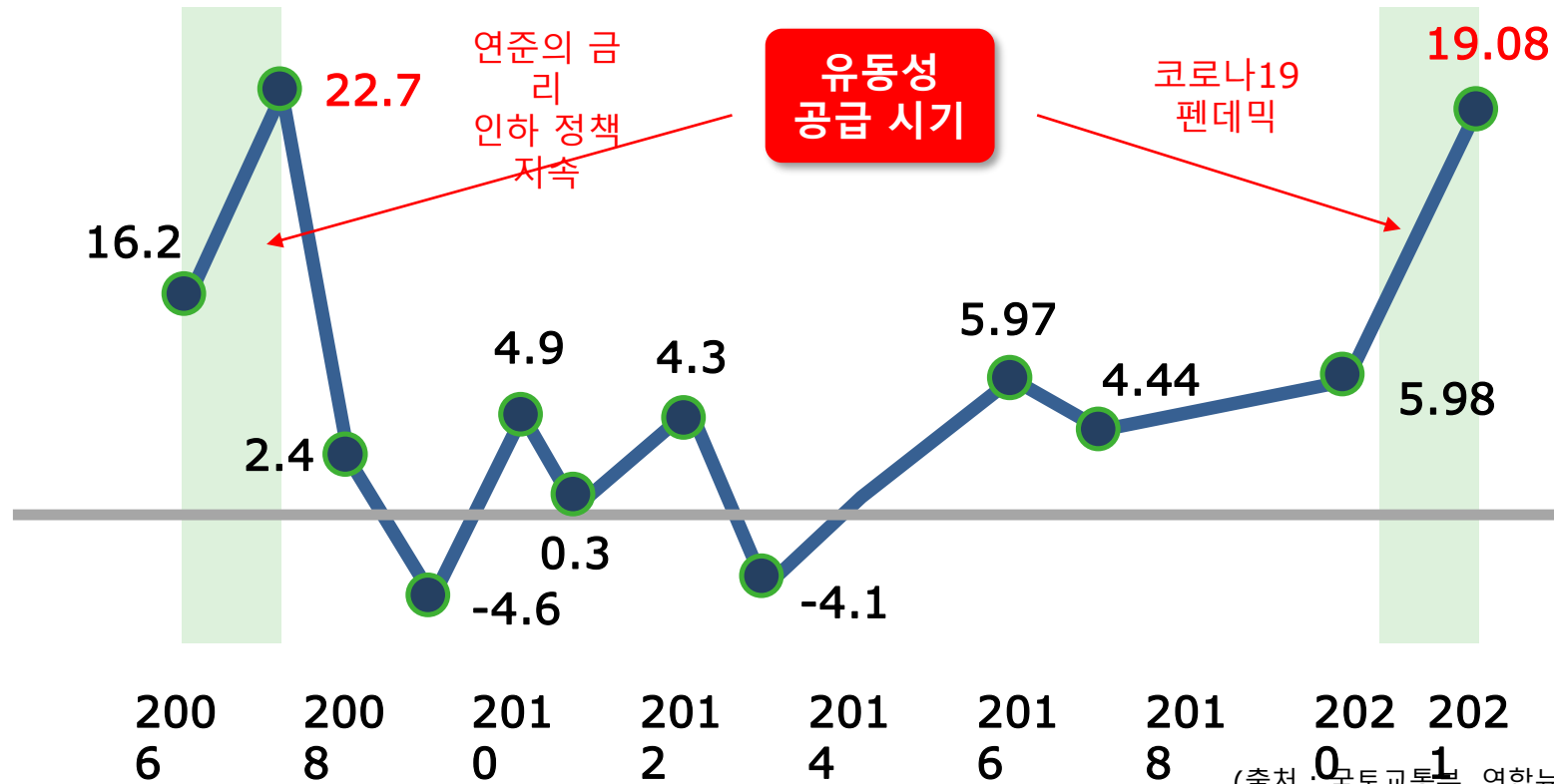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가입시 향후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부터 건보료 부과 제외까지 줄줄이 사탕 절세 혜택

- 반복되는 유동성 잔치, 자산가격(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의 상승은 다시 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출처 :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2021.3.15)

● 부동산 시가평가로 상속세 부담 증가



| | | |
|--|--|------------------|
|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보도참고자료 |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
| 보도일시 | 2020. 1. 31.(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생산 부서: <u>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u> | 담당 과장 <u>김길용</u> 과 장 | 044) 204-3441 |
| 배포 일자: 2020년 1월 31일 | 담당 자 <u>김종두</u> 사무관 | 044) 204-3457 |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교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시행배경)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시가평가로 상속세 부담 증가

□ '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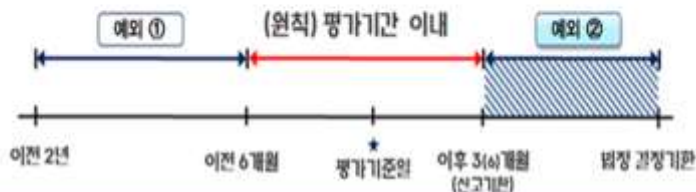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개정내용 >

○ (개정내용)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 종 전 | 기 정('19.2.12. 시행) |
|--|---|
|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

<적용례> 이 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시가에 근접한 평가

“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 시행배경으로 상속·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는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 최근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49조 단서 조항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료 : 2022 상속금 준비하라, 나철호, 2021. 6.2)

”

● 중산층의 상속세 과세 대중화

【2011~2020상속세 과세 현황】



【총 피상속인수와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출처 : 보험연구원)

“집값 폭등에 ‘금수저 세금’은 옛말...**중산층 상속세 쓰나미** 몰려 온다”

(출처 : 서울경제, 20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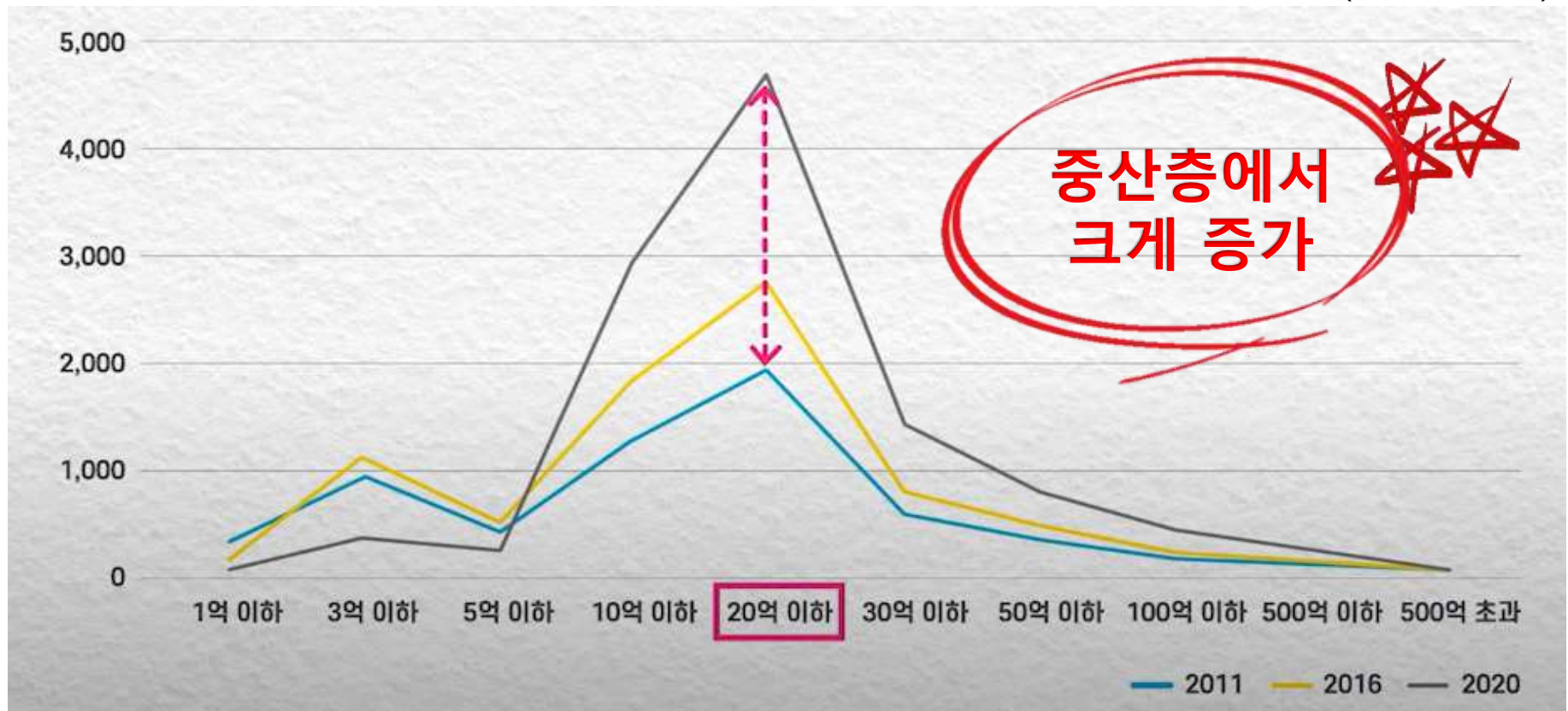
“상속세 남일 아니네”...4년뒤 서울 아파트 **60% 세금폭탄**”

(출처 : 매일경제, 2021.10.24)

● 중산층의 상속세 과세 대중화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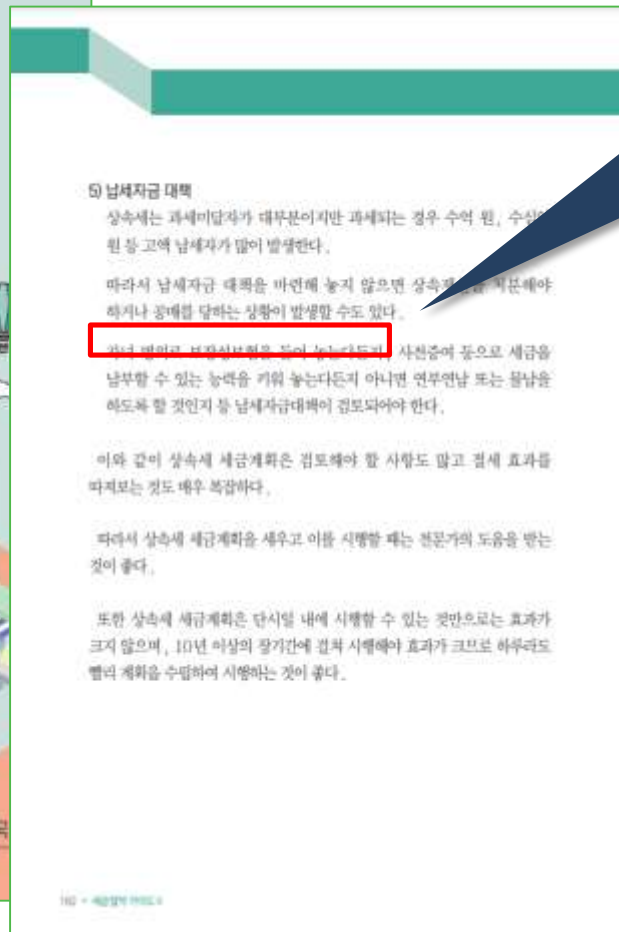
(출처 : 보험연구원)



- 상속세 납부 자원 마련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세금절약 가이드 II)



보장성보험(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



현금

상속세 재원으로
써 현금 부족 가능

담보
대출

빚의 증가

물납

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 시 평가액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부동산
매도

급매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 여부

| 구분 | 민법 | 상증법 |
|-----------------------------|---|----------------------------|
| 소유권한 | 수익자 고유재산 | 간주상속재산 |
| 부채포함여부 | 미포함 | - |
| 관련근거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 두 5592 판결 등 | 상증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 종신보험 | 1. 부채보다 자산이 클 경우에는 단순승인 으로! ⇒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2.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에는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 ⇒ 가족 생활자금으로 활용 |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의 활용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자산이전 효과 예시

| 구 분 | | 종신보험 미가입시 | 종신보험 가입시(夫) | 종신보험 가입시 (경제력 있는 妻 /子/女) |
|---------------|------|--------------------|---------------------|-----------------------------|
| 상속 재산 | 부동산 | 100억 원 | 100억 원 | 100억 원 |
| | 금융재산 | 50억 원 | 50억 원 | 50억 원 |
| | 보험금 | - | 50억 원 | - |
| | 계 | 150억 원 | 200억 원 | 150억 원 |
| 상속공제 계 | | 37억 원 | 37억 원 | 37억 원 |
| 과세표준 | | 112억 9,500만원 | 162억 9,500만원 | 112억 9,500만원 |
| 세율 | | 50% | 50% | 50% |
| 산출세액 | | 51억 8,750만원 | 76억 8,750만원 | 51억 8,75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 3% | 3% | 3% |
| 결정세액 | | 50억 3,187만원 | 74억 5,687만원 | 50억 3,187만원 |
| 상속재산 외 보험금 | | | | 50억 원 |
| 상속세 납부 후 잔여재산 | | 99억 6,812만원 | 125억 4,312만원 | 149억 6,812만원 |

※ 상속공제 가정 : 배우자공제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 장례비공제 500만원

● 무배당 교보뉴더튼튼한종신보험으로 빛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매일경제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가계부채 걱정

A0

레드라인 넘은 韓 가계부채 ... 전세금 합산땀 '세계 1위'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자 만성질환이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으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높아졌고, 정부의 외환보유에도 탄탄하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외채 비율은 올 1분기 38.2%로, IMF가 정한 위험 기준선(100% 초과)은 물론 아시아 평균(125.7%)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는 민간부채는 급증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173.8%로, IMF 위기 기준선(100% 초과)을 뛰어넘었다. 가계가 상환 능력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와 자산 시장에 투자한 영향이다.

민간부채의 주축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8%로, 비교 대상인 43개국 가운데 4위다.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2071조5000억원)보다 가계부채가 5.8%포인트 더 많다는 얘기다. 미국(78.0%), 일본(68.8%), 독일(56.8%), 중국(51.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고금리 환경에 부채 폭탄이 터지면 경제가 통제로 무너져내릴 위험성이 크다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빛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 손실(빚

버블 터지면 연쇄 타격 위험
보증금 합치면 105%→153%
美·日 등 43개국 중 가장 높아

가계부채 통계 개선 시급
경제활동인구 2.4%만 조사
자영업 대출 300조도 뇌관

을 갚지 못하는 사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 통계에 커다란 시각지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96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전세보증금이 잠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공식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상에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연히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다만 전세보증금과 기존 가계부채 통계에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대출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얼마만큼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줬는지 조사할 방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가계부채 통계를 더 정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보증금이라는 빚이 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눈을 감

주요국 가계부채 비교 (단위:%) '자산과 기준, 자료:국제결제은행(BIS)·한국경제연구원



으면 전체 부채 문제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전세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며 "보다 정확한 국내 가계부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계 체계에서 배제된 전세보증금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서 빠져 있는 빚은 또 있다. 30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채다.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빚에

서 제외된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빠진 가계빚은 1889조4000억원(2분기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가계와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도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빚을 되갚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금리 국면에 모두 개인의 부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가계에 영세 자영업자 빚까지 더하면 국내 빚은 2000조원을 넘어선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213조7000억원(1분기 기준)으로, 한은이 산출한 가계부채보다 344조3000억원이 더 많다. BIS 등 글로벌 기관은 실질적으로 경제에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감안해 통계를 짜기 때문에 기

계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채까지 합산해 통계를 낸다.


가계에 영세 자영업자를 더하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지난해 총 가계부채는 31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8%가 아니라 153.9%로 단 43개국 가운데 1위로 뛰어오른다.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보기 위한 미시 통계로는 한은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가계금융·복

지조사 등 2개가 있다. 이들 모두 표준 집단이 적거나 갱신 시점이 1년에 1~4차례에 그쳐 추시로 변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가계부채 DB 표준 집단은 만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의 2.4%인 110만명에 불과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분석 대상이 전국 2만 가구에 그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 금리 인상요인이 강해지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 상환 방식을 차질하게 재정경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면서 서민 금융안전권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으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 | | | | |
|--|----------------|------------------------|--|---|
|  법무부 | | 보 도 자 료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인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보도일시 | 배도 즉시 보도 | 송 4쪽(붙임 2쪽 포함) / 사진 없음 | | |
| 배도일시 | 2022. 4. 5.(화) | 발달부서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
| 부서장 | 법무심의관 정재민 | 발달자 | 서기관 이세주 02) 2110-3507 법무관 문희소 02) 2110-3729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속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 4. 5.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 '20.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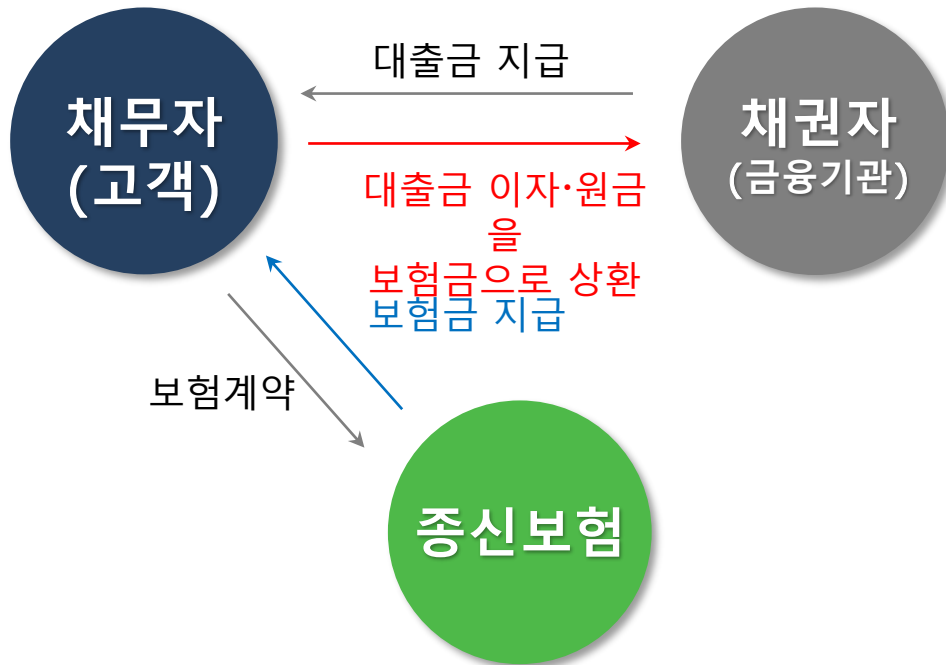
□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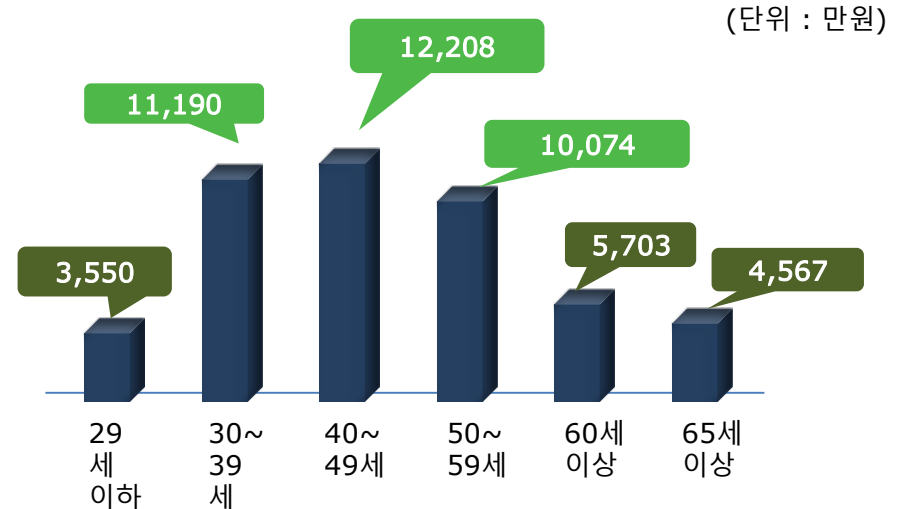
【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사망보험금을 통해 빚(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빚의 대물림은 방지할 수 있음 ⇒ 자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불행을 사전 방지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을 신용보험의 역할로써 활용하기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부채규모



(출처 : 통계청, 2021.12.16)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은 차입자 사망 시 미상환 채무잔액을 상환하는 상품. 대출기관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므로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도 인식이 가능하고, 보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잔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기능 역할. 선진국에서는 신용생명보험외에 신용상해질병보험, 신용실업보험, 신용재물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해 부진한 상황임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부채상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용생명보험과 같은 역할 수행**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으로 자녀를 위한 목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목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퀴즈) 월 100만원씩 몇 년 모으면 종잣돈 1억원이 모일까요? (정답) 8년 4개월
재테크의 기본! 완납 후 바로 목적자금 활용 or 연금재원으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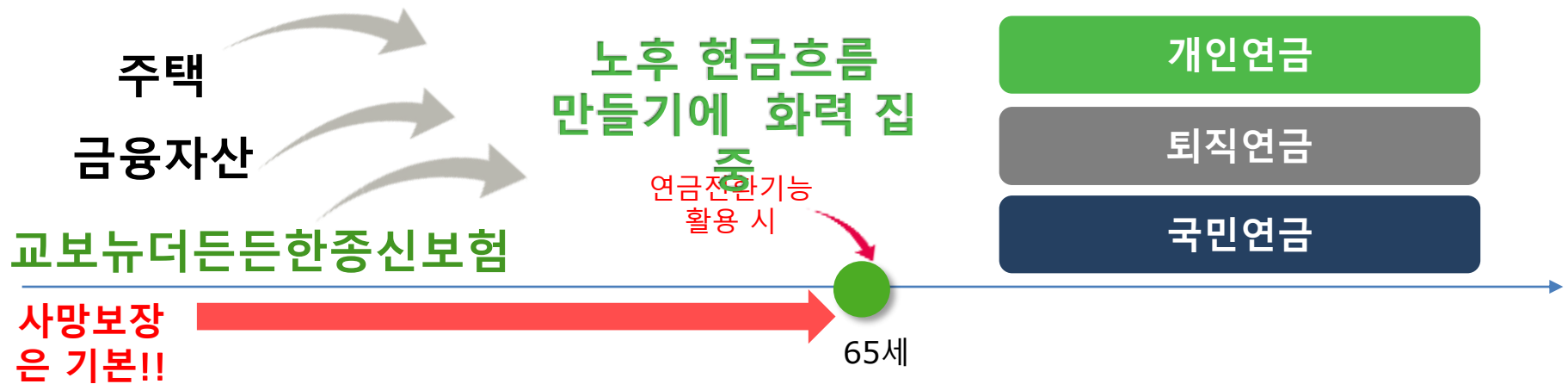
목적자금 플랜! 꿈★은 이루어진다!

(40세 남자, 7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시)

| 내가 꿈꾸는 것은? | | 7년 시점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 아이유학자금 / 꿈을 이루는 종잣돈 | 목표 자금 5천만원 | 5,772 만원 (100.9%) | 6,157 만원 (107.6%) | 7,433 만원 (129.9%) | 8,674 만원 (151.6%) | 9,895 만원 (173.0%) | 10,964 만 원 (191.7%) |

“자녀교육자금, 해외여행자금, 주택확장자금 등 다용도 활용 가능”

● 무배당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으로 노후 현금흐름(생활비) 보완하기



수록기간: 월 2008.05 ~ 2022.05 / 자료경신일: 2022-07-26 / 주석정보

| 성별 | 2020.05 | 2021.05 |
|----|----------|------------|
| | 55~79세인구 | 평균수령액 (만원) |
| 계 | 14,271 | 64 |
| 남자 | 6,788 | 83 |
| 여자 | 7,484 | 43 |

1월 더 보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성별 연금수령여부 및 월평균수령액

1인 기준 국민연금 월수령액

전체 64만원

남자 83만원

여자 43만원

4. 연금수령

□ 2021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39,270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로 전년(3.3%) 대비 1.0%p 증가했다.

○ 금액 기준으로 전체 9.3조원 중 34.3%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에 해당하는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원으로 나타났다.

* '20년 연금수령 비중: 계좌기준 3.3% 금액기준 28.4% 평균수령액 1억 8,998만원

※ 참고 1: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참고 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평균수령액
1억 8,998만원

(출처 : 통계청)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4.17)

『교보 관찰아요 암보험』의 핵심 강점은?

1

암치료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암진단시 **최대 1억원** 보장
(15~54세 1억원, 55~80세 5천만원)

2

유방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진단비 **1억원** 보장(초기 유방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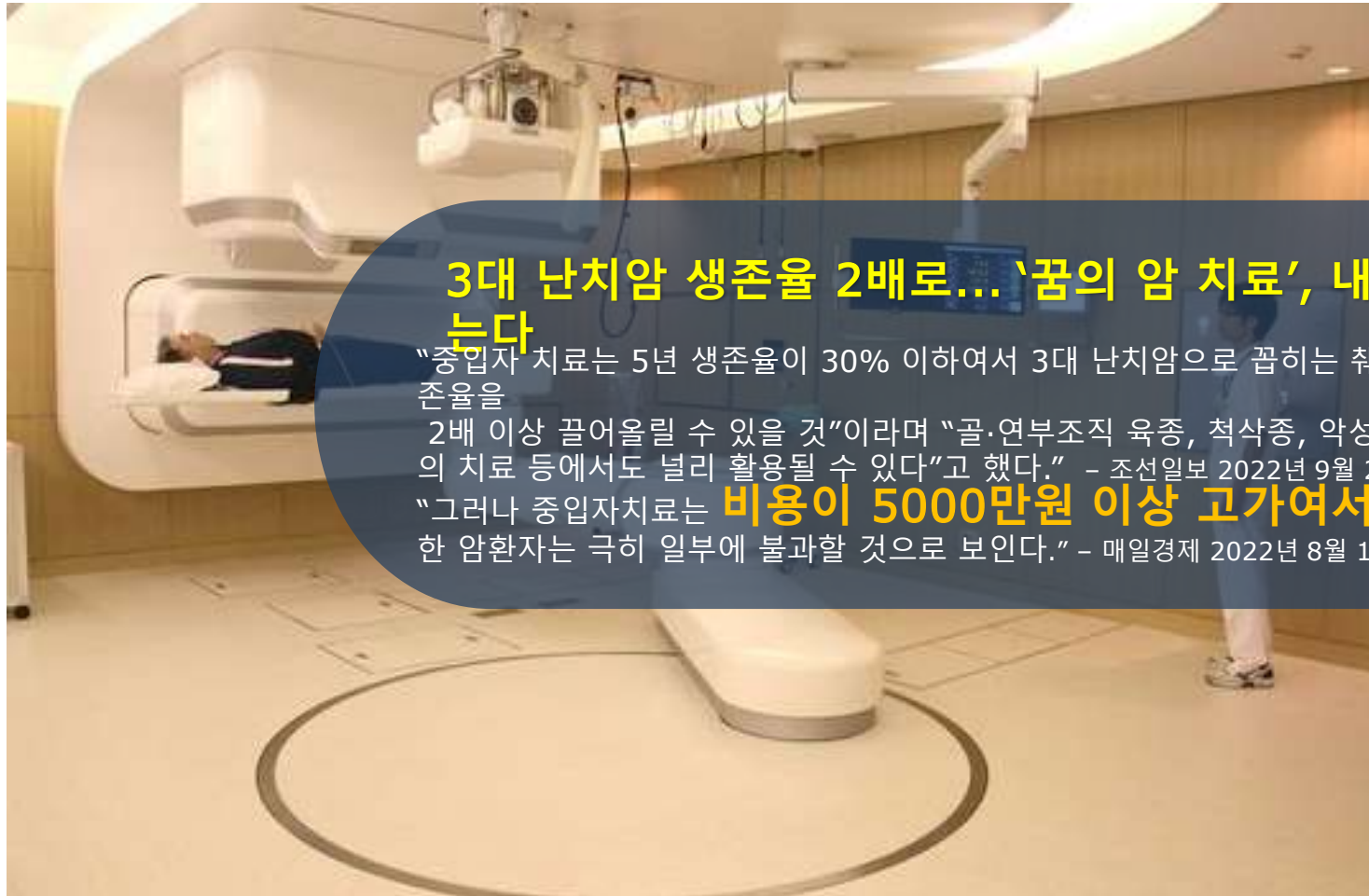
3

무시할 수 없는 **초기유방암, 특정갑상선암, 전립선암 최대 4천만원** 보장

4

지금은 헬스케어 시대, 『관찰아요 암보험』 가입 시 **헬스케어서비스 지원**
(단, 월 3만원 이상 가입 시,, 암특화형, 15년 지원)

- 암치료기술의 발전만큼 비례하는 개인의료비 부담, 암진단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



3대 난치암 생존율 2배로... '꿈의 암 치료', 내년 봄 국내서 받는다

“중입자 치료는 5년 생존율이 30% 이하여서 3대 난치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폐암, 간암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골·연부조직 육종, 척삭종, 악성 흑색종 등의 희귀암의 치료 등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2022년 9월 20일 -

“그러나 중입자치료는 **비용이 5000만원 이상 고가여서** 실제 치료가 가능한 암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2022년 8월 10일 -

● 암치료기술의 발전만큼 비례하는 개인의료비 부담

| 항목 | 코드 | 가격정보(비용) |
|-------------------|-------|-------------|
| 다빈치로봇수술D(간담체암센터) | QZ961 | 15,000,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E(간담체암센터) | QZ961 | 18,000,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C(갑상선암센터) | QZ961 | 10,557,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A(대장암센터) | QZ961 | 12,633,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B(폐암센터) | QZ961 | 10,557,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자궁내막암센터) | QZ961 | 12,000,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E(자궁난관암센터) | QZ961 | 14,012,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D(폐암센터) | QZ961 | 15,575,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M(비뇨기암센터) | QZ961 | 10,384,000원 |
| 다빈치로봇수술위절제술(위암센터) | QZ961 | 12,663,000원 |

다빈치로봇수술은 국민건강
보험 급여 적용 NO!!
⇒ 발생비용은 모두 본인부담

암진단비
증액

다빈치로봇
3대수술보장

All Care 보장에서 더욱 빛나는 『관찰아요 암보험』

예방/전조위
험

3대질환MRI검사특약(갱신형), PET검사특약,
2대질환혈관조영술검사특약, 2대질환CT,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
수액검사특약 등

진단

암진단비, 선택암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등

치료

암수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항암양성자/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 등

관리(합병증, 후속치료)

급여암특정재활치료특약(갱신형), 암진후장애진단,
인공배뇨배설및기관절개수술, 항암방사선치료후9대
합병증진단특약(갱신형) 등

암 전조 질환부터
진단 치료는 물론
사망에 이르기까지
All care 보장!!

“ But, 암보험이지만 **뇌심혈관질환관련 보장도 가입** 가능 ”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진단비 등)

- 단일 암종으로서 최다 발생비중을 갖고 있는 유방암(초기 제외)에 대한 일반암 보장 1억원



(출처 : 한국유방암학회, 『 2022 유방암백서 』)

| 연령대 | 발생자수 | 연령대 | 발생자수 |
|---------------|---------------|---------------|--------------|
| 전체 | 24,820 | 40~44세 | 3,020 |
| 0~4세 | - | 45~49세 | 4,694 |
| 5~9세 | - | 50~54세 | 3,944 |
| 10~14세 | 1 | 55~59세 | 3,505 |
| 15~19세 | 3 | 60~64세 | 3,013 |
| 20~24세 | 30 | 65~69세 | 1,651 |
| 25~29세 | 170 | 70~74세 | 1,240 |
| 30~34세 | 523 | 75~79세 | 831 |
| 35~39세 | 1,543 | 80세 이상 | 652 |

(출처 : 통계청, 『연령대별 암발생자수, 2022. 8. 31』)

- 우리나라 여성들은 **30대 후반부터** 급격히 유방암이 발생합니다.
 - 단일 암종으로서 **여성의 유방암의 발생자수는 단연 으뜸**입니다.
- ⇒ 유방암은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 갑상선암 여성 발생자수는 동일 기준 23,160명

● 단일 암종으로서 최다 발생비율을 갖고 있는 유방암(초기 제외)에 대한 일반암 보장 1억원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KBCS). A navigation bar at the top includes links for HOME, JOIN, SITEMAP, CONTACT US, and ENGLISH.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menu with categories like 학회소개, 학회간행물, 학술프로그램, 학회사업, 회원공간, and 관련사이트.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유방암, 궁금하세요?' (Breast Cancer, Curious?) with sub-links: '한눈에 보는 유방암', '유방암 기본정보', '병기체크', and '유방암 단계별 맞춤정보'. The '유방암 단계별 맞춤정보'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green box and contains the text: '유방암 1기'. Below this, a '병기 설명' (Stage Explanation) secti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green box. It defines Stage 1 breast cancer as follows: '침윤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상피뿐만 아니라 기저막을 넘어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를 말한다. 1기 암은 침윤성 유방암 중 가장 초기로, 종양의 크기가 2cm이하이면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없거나, 미세전이만 있으며, 전신 전이가 없는 경우이다.' (Invasive breast cancer is defined as cancer cells invading surrounding tissues beyond the basement membrane. Stage 1 cancer is the earliest type of invasive breast cancer, with tumor size less than 2cm, no lymph node metastasis or only micrometastasis, and no distant metastasis.) To the right of this text, a red box highlights the phrase '1기 유방암은 초기유방암' (Stage 1 breast cancer is early breast cancer), with a green arrow pointing from the definition text to this phrase. Further to the right, another green arrow points from the definition text to a red box containing the text: '교보관찰아요암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의 정의와 동일' (Same definition of early breast cancer as specified in the policy of Kyobokwan Challyou Cancer Insurance).

HOME JOIN SITEMAP CONTACT US ENGLISH

한국유방암학회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함께하는 도전,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유방암학회
With you, the World Leading KBCS

학회소개 학회간행물 학술프로그램 학회사업 회원공간 관련사이트

유방암, 궁금하세요?

- 한눈에 보는 유방암
- 유방암 기본정보
- 병기체크
- 유방암 단계별 맞춤정보

유방암 단계별 맞춤정보

- 유방암 1기

병기 설명

침윤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상피뿐만 아니라 기저막을 넘어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를 말한다. 1기 암은 침윤성 유방암 중 가장 초기로,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없거나, 미세전이만 있으며, 전신 전이가 없는 경우이다.

즉, 암 진행에서 초기 단계이므로 재발과 전이가 적어 생존률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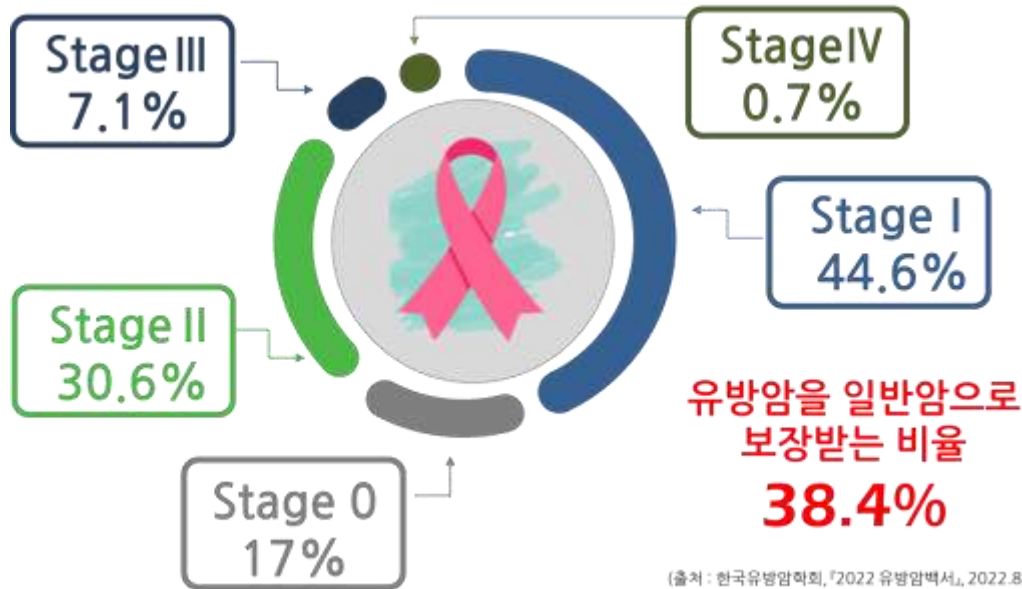
1기 유방암은 초기유방암

교보관찰아요암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의 정의와 동일

(출처 : 한국유방암학회 홈페이지)

- 단일 암종으로서 최다 발생비율을 갖고 있는 유방암(초기 제외)에 대한 일반암 보장 1억원

유방암 병기별 환자 비율



(출처: 한국유방암학회, 『2022 유방암백서』, 2022.8)

유방암 환자 中

약 40%는
일반암 보
장

“ 유방암의 소액암화 추세 속에서 『교보관촬아요 암보험』에서 유방암을 일반암 보장하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진단비 등)

- 단일 암종으로서 최다 발생비율을 갖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일반암 보장 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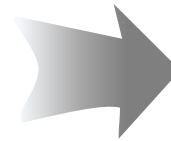


Fly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무하마드 알리)

관참아요
암보험

Approach



교보뉴더든든
한종신보험

Closing

“ 『관참아요 암보험』의 생활밀착형질병보장으로 고객 접근 ”

(대상포진및통풍보장, 궤양성대장염진단특약, 당뇨진단및합병증보장특약 등)

『교보관찰아요 암보험』으로 고객의 니즈(원하는 것)에 따라 맞춤형 보장!!

(단위 : 만원, 원) (기본보장형, 40세 여성, 20년납 100세 만기 기준 시)

| 보장항목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주계약 | 2000 | 26,000 |
| New플러스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Ⅱ1형 | 30원 | 1 |
| New플러스보험료납입면제특약 1형 | 5,991 원 | 243 |
| New플러스보험료납입면제특약 2형 | 2,6000 원 | 260 |
| 소액암진단비(5년만기 전기납) (갱) | 1,000 | 1,390 |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20년납 100세) | 1000 | 1,040 |
| 폐암 및 후두암진단보장특약(20년납 100세) | 2,000 | 4,000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5년만기, 전기납) (갱) | 2,000 | 980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20년납 100세) | 1000 | 951 |
|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특약(20년만기, 전기납) (갱) | 1,000 | 30 |
| 항암세기조조러방사선치료특약(5년만기, 전기납)(갱) | 1,000 | 600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5년만기, 전기납)(갱) | 1,000 | 130 |



“ 꼭 필요한 것만 골라담는 보장플랜 ”

든든한 내편 하나

교보생명 FP

교보생명 FP는 고객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보생명 FP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

바로 교보생명 FP입니다.